

서울대 총동창회 제26대 이사로 선임

김동인 발행인, 2018년까지 2년 임기



김동인 이사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본보 김동인 발행인이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제 26대 이사로 선임됐다.

서울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서정화)는 지난 3월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대연회장에서 1천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어 회장과 부회장, 상임이사와 이사 등 총동문회 회장단을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본보 김 발행인은 안건으로 상정된 다른 이사들과 함께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로 선출돼 이날부터 오는 2018년 3월 정기총회 때까지 임기 2년의 제26대 이사로 활동하게 됐다.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는 이어 지난 5월 10일에는 서울 더플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제163차 상임이사회를 개최, 제26대 고문 추대 건을 상정해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을 제외한 13명의 고문을 재추대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이날 서정화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서울대 동문을 대표하는 얼굴로서 이 네트워크가 확실히 이뤄지도록 서로 유대감을 갖고 의논하시고 저에게 많은 지지를 주셔서 제가 임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극적인 조언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는 2015년 지난 한 해에만 장학금 및 연구지원비로 40여억원을 지원했으며, 2016년 새해 들어서도 지난 2월 22일 1학기 장학금 및 특기장학금 수여식을 열어 총 544명에게 16억여원을 전달했다. 또 서울대 12개 단과대학동창회에서도 이번 학기에 모두 231명에게 6억여원의 장학금을 별도 지원했다.

반월 · 시화산단, 스마트공장 확산 전진기지

현대차, KT, 정부 · 지자체 등 총 909억원 투자



▲ 사진은 스마트공장 선포식 모습이다.

국내 최대 국가산업단지인 반월 · 시화산단이 스마트공장 확산의 거점으로 육성된다.

스마트공장은 제품의 기획 · 설계 · 생산 · 유통 등 전 생산과정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지능형 공장을 말한다.

반월시화 산단의 지정면적은 38백만㎡, 등록업체수 19,927개사, 고용인원

306,690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는 지난 5월 24일 경기테크노파크에서 「반월 · 시화산단 스마트공장 거점 클러스터」 선포식을 개최하고, 향후 3년간('16~'18)

정부 · 지자체 · 민간기업(현대차, KT 등)이 대표 · 데모 스마트공장 및 스마트통신인프라 구축 등에 총 909억원(민간 719억원, 정부 100억원, 지자체 90억원)을 투자하여 반월 · 시화산단을 스마트공장 거점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중소 · 중견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산업현장의 모텔하우스"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최근 글로벌 저성장 추이에 따라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공장 등을 활용한 우리 제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확보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민관협력 6대 중점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반월시화산단을 중소 · 중견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산업현장의 스마트공장 모텔하우스」로 발전시키고, 산업단지와 결합된 스마트공장 보급모형 확산과 함께 해외 신흥시장에도 우리나라 스마트공장 모델이 진출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생태계 조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업계와 전문가, 유관기관 등의 적극적 참여와 상호협력력을 당부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장관, 국회의원(전해철, 박순자, 현대차(사장), KT(사장), 동양피스톤(회장), 반월시화 입주기업, 경기도, 안산시, 지원기관 등 총 300여명 참석했다.

조정식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내정

▲ **속보** 시흥을 조정식(사진) 4선 국회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 내

정됐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오전 상임위원장 인선과 관련한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발표하고 "이번 인선은 전문성과 경력, 당이 각 상임위 영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주요 전망, 정책 계획과 방향성 등이 고려되었다"고 천명했다.



김용기 측량사 사무소 (구)신일측량
 현황측량 · 토목설계 · 토지분할 · 토지 형질변경 등록전환 · 각종 인, 허가
대한측량협회 시흥시 지부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특기기술자
 대표 **김용기** 경기도 시흥시 새재로 3, B107호 (장현동, 장현2 엔프러스빌)
 Mobile 010-5335-5388 TEL (031) 317-0501~3
 E-Mail shini0501@naver.com FAX (031) 317-0504

(주)대명종합물산 TEL 031)311-3559 FAX 031)311-8138
 주소 : 경기도 시흥시 복지로 27 (대야동)
▶기업&산업현장에서 필요한 모든것!
단체복 | 안전화 | 안전용품 | 청소용품 | 포장용품

- 면장갑 400g / 300켤레(1포) : 42,000원
 450g / 300켤레(1포) : 45,000원
 500g / 300켤레(1포) : 48,000원
 550g / 300켤레(1포) : 51,000원
- 반코팅(가드맨) / 300켤레(1포) : 45,000원
- 황이중(가드맨) / 200켤레(1포) : 80,000원
- 청이중(가드맨) / 200켤레(1포) : 80,000원
- 완전코팅(실)(가드맨) / 200켤레(1포) : 100,000원
- 완전코팅(메리야스)(가드맨) / 200켤레(1포) : 160,000원
- 백코팅 / 300켤레 : 90,000원
- 노랑코팅 / 300켤레 : 90,000원

전국 어디든 당일 발송 해드립니다!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교례회'

우성호 원내대표 홍윤식 행자부장관 참석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교례회가 지난 6월 8일 오후 7시부터 강원도민회중양회와 강원도민일보 공동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교례회에는 강원도 출신 유력 인사들이 초청인사로 초대돼 우성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새누리당 사무총장, 정의당 추혜선 의원, 무소속 이철규 의원 등 강원도 출신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당선 축하했다.

이번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강원도 출신 및 연고 국회의원은 철원출신 우성호, 김정우, 지상욱 의원을 비롯해 영동열, 이양수, 김기선, 김진태, 황영철, 송기현, 민병두, 정성호, 김선동, 박순자, 김성원, 여기구 의원 등 모두 26명이다.



▲ 사진은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환영 교례회에 참석한 홍윤식 행자처장관 장관이 당선 축하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구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PBC평화방송 이상도 보도국장, 전상수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정성희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등이 참석했다.

또 이날 행사에는 한승수 전 국무총리, 홍윤식 행자부장관, 류근배 서울대학교 부총장, 김숙자 배화여대 총장,

주철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서동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상무, 사재훈 삼성증권 상무이사, 이현중 철원군수, 유기준 외교부 국장, 지연옥 연립중재위 위원, 김용하 산림청 차장, 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 본보 김동인 발행인도 초청인사로 초대돼 교례회에 참석했다.

인터뷰 | 정용선 경기남부경찰청장

도민을 사랑하는, 도민이 사랑하는 경찰을 비전으로

안매켜소 운동,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치안 약자보호, 차적조회, 특별형사대운영 등 핵심과제 실천 성과

언제때든 교통사고 예방지시등을 켜면 안전과 소통이 확보된다는 안매켜소 운동,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차적조회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각종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로 부터 경기도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는 정용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의 인터뷰를 지난 5월19일 진행, 이를 통해 경기도 치안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수장으로로서의 각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핵심과제 및 차안정책의 새로운 변화, 치안커버넌스 구축, 경기도 치안을 위한 경기도내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운영 등 도민들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여성전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시 장애인단체들을 위한 세심한 보살핌으로 며칠전 대전청에서 인종연 협회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들고 찾아 주어 경찰로서 최고의 보람을 느낀다는 청장장의 인터뷰 내내 따뜻함과 편안함으로 훈기를 더했다. <편집자주>

이를 위해 5월 한 달간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경기남부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집중 단속 중에 있습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지난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경찰이 단속해줄길 원하는 행위인 정지선(신호)위반(1위), 교차로 꼬리물기(2위), 끼어들기(3위)와 교통사고사고 감소를 위한 '안매켜 미작용'입니다.

단속방법은 현장 단속과 함께 장비가 투입돼 캠퍼 등 영상촬영 단속도 병행하고 있으며, 단속 장소마다 입간판 및 배너를 설치하여 법규 준수를 제고하고, 생계형 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계도를 통해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단속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운전자로부터 공익 목적으로 위반행위가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도 제공받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선량한 운전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로부터 도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교차로 무질서 행위'가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도민공감 치안이다”

▲ 도민을 사랑하는, 도민이 사랑하는 경찰을 위해 청장님이 지향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의 핵심과제 및 차안정책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 한 말씀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경찰은 도민을 사랑으로 대해야 할 의무가 있고, 도민의 사랑을 받을 때 존재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도민을 사랑하는, 도민이 사랑하는 경찰'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이 지향하는 핵심과제는 '안전'이며, 먼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매켜소 운동',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생활 속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차적 조회 생활화'와 상대적으로 불안감이 높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형사대 운영' 등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장애인·여성·아동·탈북민·결혼이주여성 등 치안 약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치안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으며, 치안 약자의 안전을 기준으로 전반적인 치안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청장님 취임 이후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안매켜소 운동'을 적극 실천해 오셨는데, 하게 된 동기와 대대적인 홍보 및 실천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경기도는 많은 교통량 및 인구 등 타지역에 비해 교통여건이 열악한 상황으로 지난해 교통사고로 596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자는 취지로 '안매켜소' 운동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안매켜소' 운동은 '안매켜를 매고 주간 전조등·방향지시등을 켜면 안전과 소통이 확보 된다'는 의미로, 이중 안전띠나 방향지시등은 교통법규에 명문화되어 있으나 '주간 전조등 켜기'는 아직 입법화되어 있지 않아 이를 중점 실천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효과적인 추진과 불 조성을 위해 경기도청, 도교육청 등 230개의 기관·단체 및 언론사 등과 '안매켜소' 운동 동참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홍보영상 및 '안매켜송'을 제작하여 네이버, 페이스북,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지역 내 관공서, 운수업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방문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노력과 참여로 전조등을 켜 차량이 눈에 띄게 늘었고, 지난해와 비교하여 교통사고 사망자가 11.6%(22명) 감소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안매켜소' 운동은 운전자의 습관을 바꿔나가는 것으로, 일시에 확산효과를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꾸준한 홍보와 지속적인 동참유도를 통해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함께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청장님께서도 교통약자인 노인·장애인이·어린이 관련 교통안전 시설에도 관심이 많고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것이 있는지?

우선 노인·장애인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통한 사고예방을 위해 관내 7,718개 시설(양로원 등 노인시설 7,369, 장애인시설 349개소)에 대해 '노인보호', '장애인보호'라는 노면표지와 안전표지를 설치하여 이분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위험이 큰 건물목에, 아이들이 차도와 1m 이상 떨어져 기다릴 수 있도록 보도에 노란색 발자국을 새겨 사고를 예방하는 '노란발자국' 프로젝트를 시행중이며, 또한, 경찰관서, 관공서를 시작으로 '어르신·장애인 전용주차' 공간을 설치·확보했고, 대형마트, 백화점 등도 전용주차장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4월 20일부터 장애인 주차구역 내 비장애인 차량의 불법주차, 주차표시 위·변조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 5월 8일까지 1,803건을 단속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 단속을 통해 근절시킬 계획입니다.

▲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시행,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를 추진해 오셨는데, 이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보시는지?

지난 두달간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프로젝트에 도내 909개 초등학교를(특수학교 포함) 대상으로 총 46,007명 참여(1평군 2,300명)하며, 하굣길에는 1사-1교 자체 매걸연을 순차적으로 체결하여, 성공적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국민안전처 체감안전도 조사 결과 4월 학교 폭력 분야가 비약적으로 상승했으며,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도 감소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학교 주변 교통시설 신설·정비 등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한 결과, 학부모 1,141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83.2%가 등하굣길이 안전해졌다고 응답하여, 체감안전도 제고의 효과성도 입증했습니다.

▲ 최근 카카오톡과의 협약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네트워크를 활용한 치안커버넌스 구축에 대한 소개와 이외에도 경기도 치안을 위해 도내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운영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카카오톡과의 협조체제는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특징을 결합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대중화를 배경으로, 전국을 누비는 택시기사들의 강력한 정보력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지난 3월 카카오톡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카카오톡 동보체제를 모바일 시대 치안인프라 확충을 위한 디딤돌로 삼아 운영상 개선사항과 활용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관리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찰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경찰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치안커버넌스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에 지자체, 지역의회, 각종 유관기관 단체들과 간담회 및 치안설명회 등을 통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교차로 무질서 운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 중인 것으로 있는데, 단속취지는 무엇이며 어떤 위반행위들을 단속하고 계신지?

지난해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868명 중 교차로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96명으로 전체 34.1%를 차지할 만큼 교차로에서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차로는 법규위반, 무질서 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교통질서를 준수토록 유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초치안, 경찰시스템 정비,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남부청의 노력과 치안 일선에서 충실히 활동하는 경찰관들의 힘은 점은?

우선 기초치안 안정과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내·대포·수배자량에 대한 차적조회를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 26,336건을 단속, 탁월한 실적 및 기초치안 안정 효과가 입증되어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적조회를 통한 불법차량 검거는 이러한 차량을 이용한 납치·강도 등 추악한 범죄예방 효과와 앞으로도 법을 위

▲ 치안 약자 보호를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신지?

자칫 치안활동에 소홀해지기 쉬운 치안 약자를 우선하여 보호하는 것이 결국은 전반적인 치안 수준의 상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선 치매노인 등 실종·가출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구조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외딴 곳에서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생명을 구한다는 마음으로 수색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한 수사민원 안내서를 점자로 제작, 경찰서별로 비치하여 수사과정에서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쉽게 당할 수 있는 전화금융사기·불법건강식품 판매 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징·보호시설에 직접 찾아가 홍보하고 있으며, 치안 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치안 정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북부지방경찰청이 새롭게 개청됨에 따라 경기도의 치안은 물론 대한민국 치안을 위해 큰 효과가 기대되는지?

경찰에서는 점적지역이라는 경기북부 지역의 특수한 치안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북부경찰청 분리·신설을 오래전부터 추진한 결과 올해 그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이 대북(對北) 관계에 있어 요충지라고 한다면, 경기남부는 대한민국 민생치안의 1번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도민 여러분의 생활에 밀접한 범죄·사고로부터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이 개청됨에 따라 경기남부청 역시 남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치안정책 추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으며, 이는 경기도 치안은 물론 대한민국 치안의 효율적 운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사립하는 경기남부경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내고 계신 수장으로로서의 각오 및 경찰가족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기남부경찰청은 '도민을 사랑하고, 도민이 사랑하는 경찰'이 되기 위해 경기남부청장으로서 경기남부경찰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바꿔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기남부경찰가족 모두는 동료에 대해서는 '존중과 배려', 국민에 대해서는 '섬김과 봉사'의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하나로 뭉쳐 행동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기남부경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잘한 일에는 아낌없는 박수를, 잘못된 일에는 따끔한 질책도 당부드리며, 도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욱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정용선 경기남부경찰청장, 김숙자 경기도지역신문협회장(이철선봉선 대표), 이영호 군포(군포신문 대표), 강명희 감사(관천신문 대표), 최용진 윤리위원(지치안신문 대표), 이상표 총무이사(윤리신문 대표), 김광성 정책이사(여성신문 대표), 오문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과장 인터뷰 기념촬영

▲ 범죄피해자를 위한 존중과 배려 서비스로 범죄피해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범죄피해 평가 전문가의 활동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강력범죄 피해자는 대부분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고통을 경험하나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절차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 평가제도란 사건 직후 피해평가전문가가 신속히 개입, 피해자가 입은 신체·재산·심리·사회·2차 피해 등 실질적 피해를 종합 진단·평가한 후, 검사자에게 보고서를 접수 받은 다음 형사절차에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지난달부터 경기남·북·서울청에서

▲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종교문화적 갈등의 원인이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와 같은 데 우리나라도 결코 테러로부터 안전하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경기도지역신문협회 공동취재단